

부가가치기준으로 본 일본의 부품 무역

* 이 자료는 핫토리 데쓰야(服部哲也)일본 타쿠쇼쿠(拓殖大学)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: 일본, 부품의 국제조달에 뒤늦어, 부가가치로 본 무역 분석(2016.8.21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일반 수출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간의 괴리 확대
- 한국은 일본보다 해외중간재를 잘 활용
- 제조업의 해외전개를 받쳐주는 서비스가 중요

- 과거의 제조업은 국내 자사공장에서 설계하여 부품을 조달, 조립하여 출하하는 국내 완결형 생산이 일반적이었음
-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보전달 기술과 국제수송의 발달 등으로 생산 공정을 세분화하여 기업이나 국가의 틀을 넘어 최적의 입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
- 이러한 설계나 물류 등을 포함한 생산 공정의 연결을 국제적인 가치의 연쇄(Global Value Chain=GVC)이라 함
- 이에 따라 국제적인 부품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반 수출액을 보는 것만으로는 각국이 수출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됨
 - 부가가치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수출액은 확대되기 때문임

□ GVC 확대와 무역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

- GVC가 확대되는 가운데, 일본의 각 산업이 무역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 수출을 계측했음
 - 부가가치 수출이라 함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부가가치가 어디에서 창출되었는가, 그 원천이 되는 국가를 특정한 수출액임
- 부가가치 기준으로 본 무역 분석은 최근 주목되고 있음
 - 일반적인 수출액과 부가가치 수출간 괴리가 매년 확대되고 있고, 특히 제조업에서 그 괴리가 큰 가운데,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중국의 對미무역흑자액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점 등이 그 주된 이유임

- 이번에는 40개국, 35개 산업에 대하여 1995년에서 2010년까지 5년마다 부가가치 수출을 계측하여 각국의 비교우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했음
- 비교우위 평가에는 RCA가 사용되었는데, RCA는 어느 국가의 산업의 수출비율이 세계 전체의 비율보다도 어느 정도 큰가를 나타내는 지수임
- 일본의 자동차가 수출액의 20%를 점하는 경우 세계 전체의 동 비율이 10%라면 일본의 RCA는 2가 됨
- RCA가 1을 상회하면 그 나라의 당해산업은 비교우위가 있으며 1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비교열위에 있음

□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비교우위지수 산출 결과

- 이번 연구에서는 거래액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으로 RCA 지수를 산출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됨
- 첫째, 일본이 강하다고 알려진 수송용 기계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급속히 높임에 따라 2010년에 일본을 추월
- 둘째, 전기기계를 한중일간 비교하면 일본은 거래액, 부가가치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3개국 중 우위를 상실하고 있음
 - 또한 중국은 거래액 기준으로 2005년부터 한국을 상회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에서는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 - 중국은 이익 폭이 적은 최종재의 조립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, 한국은 국제적인 가치연쇄를 잘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
- 셋째, 연구개발, 정보서비스, 컨설팅 등의 비즈니스서비스를 보면, 거래액에서도 부가가치에서도 일본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, 거래액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독일이 부가가치에서는 비교우위를 높여가고 있음
 - 거래액 기준의 서비스 수출이라 함은 주로 해외고객용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을 의미함
 - 이에 비하여 부가가치기준의 수출은 수출재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공하여 재화에 포함시켜 수출한 서비스를 말함
-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송용 기계 등의 제조업에 강점을 가짐과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정보통신, 연구개발, 품질관리 등의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,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의 비즈니스서비스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
 - 이는 서비스가 제조업과 일체가 되어 독일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음을 시사

□ GVC 참여방식에 따른 비교우위 차이

- 각국의 GVC 참여방식이 비교우위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음
 - 이는 OECD가 산출한 GVC 참여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, 동 지수는 전방참가 지수(FP)와 후방참가지수(BP)로 구성
 - FP는 외국의 수출재에 사용되는 자국의 중간재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한편, BP는 자국의 수출재 가운데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, 각각 자국의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율을 나타냄
- 일본과 한국의 전기기계 관련 지수를 비교해보면, FP는 양국 모두 비교적 높음
 - 한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를 가진 중간재를 해외에 수출, GVC의 전방 공정용으로 공급함으로써 해외의 수요를 획득할 수 있음
- 한편 BP는 2009년에 일본의 4.3%에 비하여 한국은 약 3배인 13.6%임
 - 한국은 자국조달에 구애받지 않고 GVC의 후방공정에서 공급을 받아 저가로 양질의 해외중간재를 적극 투입하고 있음
 - 그러나 일본은 GVC의 후방공정으로부터의 조달이 불충분하며 해외중간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
 - 이와 같은 GVC에 대한 적극성의 차이가 전기산업에서 한일간 비교우위 차이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임

□ 일본의 과제

- GVC가 확대하는 가운데 부가가치무역으로부터 각국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, 부상한 일본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
- 우선 일본의 제조업은 GVC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
 - 일본이 비교우위가 있는 수송용 기계를 대상으로 한·독일을 비교하면, FP는 일본이 한국과 독일을 상회하나 BP는 한국과 독일의 절반정도의 비율에 불과
 - 일본은 글로벌 조달을 한층 더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쇄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창출하여 수출하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

- 다음으로, 제조업을 지탱하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, GVC의 혜택을 향수하기 쉬워짐
 - 추계에 의하면, 여타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접하는 서비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, 일본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음
 - 서비스는 생산과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음
 - 그러나 GVC시대에는 제조업의 해외전개를 지탱하는 서비스가 말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됨
 - 비즈니스 서비스의 성장은 부진이 우려되는 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
 - 일본의 소득분배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고용자보수의 비율이 저하되고 있으나 비즈니스서비스에서는 대졸이상의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
- 끝으로 TPP에는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 개선뿐만 아니라, 서비스, 투자, 무역원활화 등 최적지생산과 유연한 조달처 확보라고 하는 GVC의 이점을 향수하기 쉽게 하는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어 있음
- 이에 일본정부는 TPP에 더하여 일본·유럽FTA(EPA)와 중국도 참가하는 동아시아지역 포괄적경제연대(RCEP)등을 새로운 광역FTA의 규칙 제정을 주도, GVC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함 